

선과 면으로 표현한 동시대적 인간 군상 Julian Opie

June 2023 | 박민정 에디터

Page 1 of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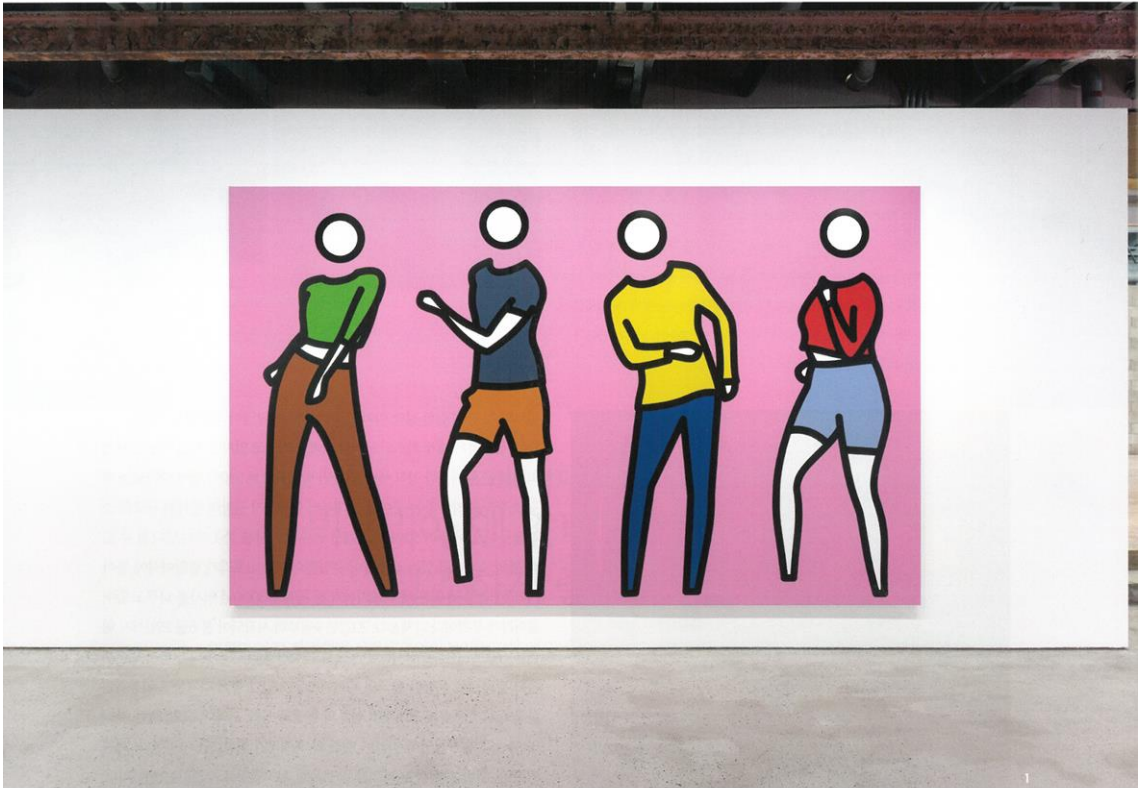
VIEWING ROOM

046

선과 면으로 표현한 동시대적 인간 군상 Julian Opie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줄리안 오피(Julian Opie)가 5년 만에 개인전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전시를 구상할 때 공간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와 전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나눈 이야기.

freelance editor 박민정 취재 협조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kukjegallery.com)



Dance 1 step 2., 2022

코로나19로 인한 1년 반의 봉쇄 기간 동안 영국은 조용하고도 외로운 도시였습니다.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서 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던 도중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 영상을 틱톡과 유튜브에서 보게 됐죠.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어요. 대개는 건물, 자연, 동물 등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즈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동작을 분석했고, 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동작을 부탁했죠. 셔플이 지닌 에너지를 색채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서 컬러를 더했는데요. 색채에 대한 영감은 가족과 함께한 스키 여행에서 만난 관광객들의 화려한 옷차림에서 받았습니

047

LIVING SENSE
2023/06

줄리안 오피는 이 시대의 아이코닉한 작가 중 한 명이다. 우리에겐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의 정면 외벽을 통해 선보인 미디어아트 '걷는 사람들(Walking People)'로도 익숙한 이 작가에겐 그야말로 '세계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색치 않다. 세계적 미술관(런던 테이트 모던, 뉴욕 현대미술관, 도쿄 현대미술관)이 그의 작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개 중인 공공예술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 그의 작업이 이토록 유명한 것은, 만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도록 누구보다 트렌디하고도 시대를 초월하는 감각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뿐인 일상의 한 단면을 조형적 언어로 해석하는 그의 작업은 예리한 관찰력, 그걸 포착하는 감각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렇게 포착한 단상을 그래픽으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컬러, 선, 면으로 한층 단순해진 도시의 장면이 생기를 얻는 것.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리는 개인전 <OPVR@Kukje/F1963.BUSAN>에도 그만의 스타일이 반짝이는 신작들이 준비되어 있다. 시대를 반영하고, 또 초월하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 작가에게 영감이 된 것은 바로 플랫폼. 줄리안 오피는 틱톡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접한 이미지와 다양한 단상을 회화, 조각, 모자이크, 영상, VR,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작품으로 만들고 관객과 만난다. 오래된 철공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은 작가의 세계를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만큼 넓고 탁 트인 공간. 관객들은 이곳에서 간단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폭발적 에너지를 지닌 춤 '서플'에서 영감을 얻은 미디어 작업은 물론 돌조각을 모아 완성한 모자이크화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기본 단위인 '픽셀'의 고전적 의미를 답습하거나, 도화지를 연상케 하는 흰 벽면 앞 4개의 러닝머신을 직접 걸으며 작품의 일부가 되어 볼 수도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든다고 보고, 이를 예술의 표현 기법에 녹여 '현재'를 말하는 작가. 이달, 더 새로워진 줄리안 오피와의 만남을 준비해도 좋겠다. **L**

ABOUT Julian Opie

195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줄리안 오피는 1982년 골드스미스대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서 얻은 이미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선과 면으로 단순화하는 특색 있는 작업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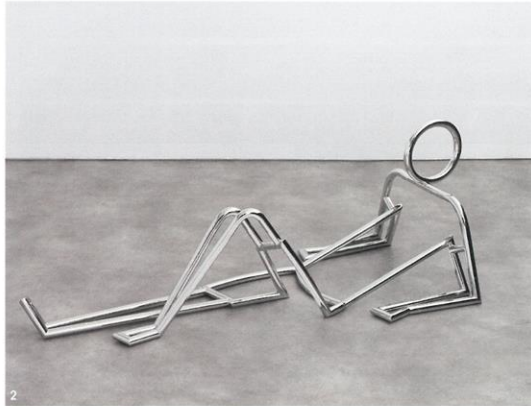


Figure 2, position 9., 2022

팬데믹 기간 동안 런던은 그야말로 '봉쇄' 상태였잖아.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공원에 나와 누워서 햇빛을 즐기고 했어요. 법적으로 런던 시민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휴식 행위였으니까요. 당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들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모습이 작품으로 구현하기 딱 좋은 포즈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계단의 나선형 손잡이를 보고 이런 소재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을 묘사하는 데 적격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White hat. & Blue jean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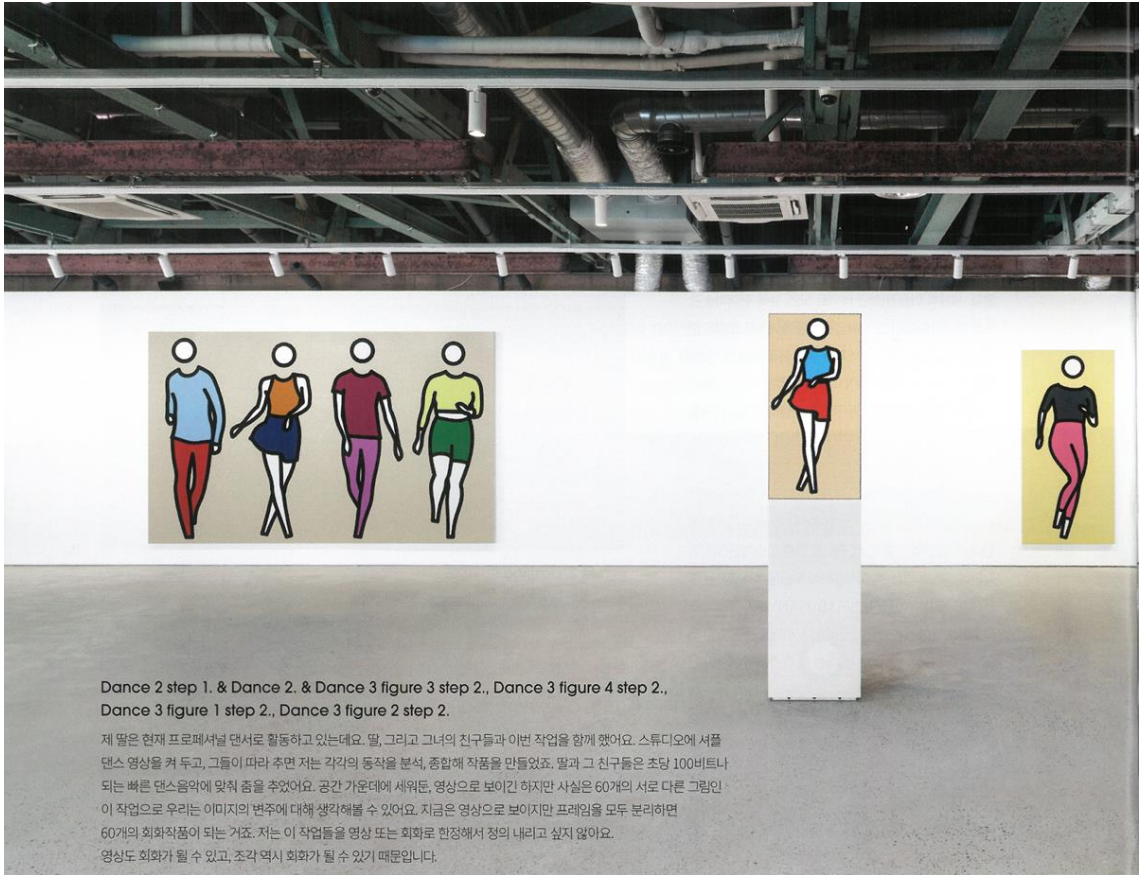
벤치에서 걷고 있는 행인들의 모습을 포착해 만든 대형 조각 작품이에요. 저는 늘 컴퓨터에 작업들을 아카이빙하는데요. 요즘은 회화, 조각, 영상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각 작품을 좀 보세요. 사실상 서 있는 회화 작품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반대로 벽에 걸린 회화 작업은 바퀴 말하면 벽에 달라붙어 있는 조각이라고도 칭할 수 있죠.

1 Dance 1 step 2., 2022, Vinyl on aluminium stretcher, 230 x 381 x 3.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2 Figure 2, position 9., 2022, Polished stainless steel, 62 x 74 x 176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3 White hat., 2023, Auto paint on aluminium, 323.1 x 143.3 x 4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Blue jeans., 2023, Auto paint on aluminium, 309.4 x 122.4 x 4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Dance 2 step 1. & Dance 2. & Dance 3 figure 3 step 2., Dance 3 figure 4 step 2.,
Dance 3 figure 1 step 2., Dance 3 figure 2 step 2.

제 딸은 현재 프로페셔널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딸,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이번 작업을 함께 했어요. 스튜디오에 셔플 댄스 영상을 켜 두고, 그들이 따라 추면 저는 각각의 동작을 분석, 종합해 작품을 만들었죠. 딸과 그 친구들은 초딩 100버트나 되는 빠른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공간 가운데에 세워둔, 영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60개의 서로 다른 그림인 이 작업으로 우리는 이미지의 변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영상으로 보이지만 프레임들 모두 분리하면 60개의 회화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작업들을 영상 또는 회화로 한정해서 청의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영상도 회화가 될 수 있고, 조각 역시 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alking in Busan., 2023

이 작품을 위해 부산에 있는 사진가 한 명에게 해운대 해변의 사람들을 찍어 달라는 의뢰를 했었어요. 그는 1시간 동안 1000여 장을 촬영해 저에게 보내줬죠. 아시아의 관객들은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도 인증샷을 남기거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원하면 자기 자신이 회화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은 제가 평소에게 거치는 제작 단계들을 볼 수 있는 지포이기도 해요. 첫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둘째는 이미지를 간결하고 단순한 선과 면으로 응축하는 것, 셋째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기술적 방식을 언어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Walking in Busan., 2023, Treadmills, Glass, Paint on wall,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Dance 2 step 1., 2022. Vinyl on aluminum stretcher, 230 x 381 x 3.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Dance 2., 2022. Continuous computer animation on 4 sided LED screen with sound, 100 x 50 x 5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Dance 3 figure 3 step 2., Dance 3 figure 4 step 2., Dance 3 figure 1 step 2., Dance 3 figure 2 step 2., 2022. Vinyl on aluminum stretcher, 210 x 100 x 3.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LIVING SENSE
 2023/06

1



Dance 4 figure 4 step 2., 2022

이 작품에는 그리스로마 시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던 고대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바로 모자이크인데요. 커다란 돌을 타일처럼 잘게 쪼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형상을 완성했어요. 제 작업이 이미지나 영상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함인 가장 기본 단위인 '픽셀'로 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작업을 고안했어요.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픽셀은 결국 고대의 작은 돌 알갱이가 아닐까 하고요. 영상은 픽셀로 구성된 작품의 현대 버전, 모자이크는 고대 버전인 거죠.

1 Dance 4 figure 4 step 2., 2022. Mosaic tiles, 121 x 5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2 Joshua. 1., 2023. Wood, 183.2 x 86.1 x 35cm(Base: 3.9 x 50 x 3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Joshua. 1., 2023

지금 보시는 작업은 딱길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주로 견고한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목재죠. 스튜디오 근처를 지나가던 분들을 무작위로 섭외해서 손을 숨긴 상태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게 한 다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조각화 한 작품입니다. 저는 늘 제 작업이 지닌 의미, 논리, 이론 같은 걸 분석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관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주 평범한 것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일상적이고 예술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만약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은 그런 시도들을 계속할 거니까요. 중요한 건 언젠가는 일상적인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리란 희망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거겠죠.

